

大巡思想의 新世紀的 考察

林泳暢*

目 次

I. 序論	4. 도통진경론
1. 서언(緒言)	III. 21세기와 대순사상의 이상
2. 방향 감각을 상실한 현대	1. 음양합덕의 평화구축
3. 우주의 근본원리, 대순사상	2. 신인조화의 인생관 정립
II. 本論	3. 해원상생으로 인류평화를
1. 음양합덕론	4. 도통진경의 진세계 건설
2. 신인조화론	IV. 結論
3. 해원상생론	

I. 序論(서론)

1. 서언(緒言)

본 논총 제2집에서 5집까지에 대순사상의 정수며 근본인 종지(宗旨)의 4개조를 나름대로 고구(考究)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하나의 개념과 정의라든지 원리 또는 역사적, 시대적 발전과정이라든지가 목적이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21세기라는 역사의 전환기에서 미래지향의 신세기적인 측면으로 천착(穿鑿)해서 이 종지들이 지닌 진가(眞價)를 발굴하는 동시에 그의 실천을 고양하여 신

* 전 경남대 교수

세기의 세계·인류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실천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졸견(拙見)을 엮어보려는 것이다.

하기는 종지의 하나 하나가 모두 나름대로의 고사(故事)적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동양적, 한국적인 철학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거시대의 역사적 전통을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다. 없다가보다 도로 그 연원과 소종래(所從來)를 밝히는 것이 미래화 세계화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것이 과거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된다고 하면 신시대 신세기에 무용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로 여기에 신세기적 고찰로서 신세기를 맞는 세계인에게 올바른 지표(指標)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이 대순종지가 한국서 발상(發祥)한 하나의 종교사상일 뿐 아니라, 능히 새세기의 세계인을 지도할 이념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2. 방향 감각을 상실한 현대

20세기말에 처한 세계인, 그 가운데도 한국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원자력 영향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 버렸던 남태평양 비키니섬의 거북의 꼴모양이라고 비난해도 좋을만큼이나 되어 있다.

동서남북의 감각을 잃어 버리고 천방지축으로 바람과 물결치는대로 그저 주어 먹기나 하고 뛰어 놀고 생식이나 하면 되는 바로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인간이라는 느낌이다.

국제적으로 보아서 미국은 호황의 경기 속에서도 대통령의 성추문사건으로 몇해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공산체제 해체후 민주 개방의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모라트리움 선언까지 하는 국가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동남아 일대에서는 한국, 타이,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제국가가 모두 경제의 혼미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그렇고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어느것 하나가 제자국에 들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전환기적인 과도현상 뿐이다.

이렇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은 현실생활, 생계문제가 GNP의 숫자와 함께 후퇴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은 IMF라는 국제금융기관에 털미를 잡혀 산업체와 금융기관들의 빅딜, 그리고 구조개편으로 일어난 연간 15만명의 실업, 실직자군상이며 부도난 중소기업으로 생산이 저하, 심지어는 재기 불가능의 상태에 빠진 공장들, 그에 따라서 일반 시민의 가계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

거기에 자연환경에서 오는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폭염, 폭한, 폭우, 폭설이 가져오는 참변이 지구의 이곳 저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오존주의보까지 연일 발표되기도 하였다.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인재(人災) 사고재(事故災)등도 그만 못지않은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부실공사에 의한 건물, 교량, 지하시설의 도괴 누전(漏電)과 가스유출등으로 생겨나는 참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면이나 자연환경, 부실시설등으로 생기는 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도덕과 사회윤리의 절멸상태에서 오는 아귀¹⁾, 아수라²⁾의 현상을 우리가 그냥 좌시(坐視)할 수가 없는데서 세기말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제 발목을 자르는 자, 아버지가 어린이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생기고 10대의소년이 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사내가 제 마누라를 살해하는가 하면 제남편을 죽인 계집, 거기에 이붓딸 10여세 된 두아이를 수백회 강간하는 짐승같은 자가 생겨나니 이것이 우리민족의 돌연변이적 사건이 아니라, 유전자가 내포하고 있던 인과응보적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 탐욕을 넘어서 수인(獸人)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달러를 갖다주고 컴퓨터를 갖다준다고 병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반대로 더 나쁜 짓을 대규모로 벌일 것이 자명(自明)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실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 정녕 20세기의 마지막인 것 같다.

여기에 이것을 뚫어 나갈 새로운 기틀이 잡히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야

1) 인도사상 윤회설 6도의 하나

2) 인도사상 윤회설 6도의 하나

할 것인바, 근본적 정신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IMF에 쓰러지든지 또 그것을 극복해서 경제대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 이 국민 이대로의 상태로는 진정한 평화세계, 인류가 갈구하는 이상사회는 이룩되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진다.

3. 우주의 근본원리, 대순사상

우주와 인간에겐 하나의 질서가 있고 범주가 있고 법칙이 있다. 희랍철학이나 기독교철학이 말하는 카오스(CHAOS=混沌)가 원초에 있었다는 말이나 동양철학이 말하는 무극(無極)이 무원리, 비질서의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질서와 범주가 내포되어 있는 것임을 오늘의 우리가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을 도(道)라고도 법(法)이라고도 또 이(理)라고도 하는 것이며 또 서구어로 로고스(Logos)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미개했던 시대에는 인격화해서 창조주니 조물주니 하는 주역(主役)의 가시적 인물을 설정하기도 했지만 뒤에 와서 자연(自然)이라고 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자연이란 말이 동양에서는 관념의 세계에서나 현실세계에서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나 과정을 의미하여 그 자연그대로가 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유·불·선(儒佛仙) 도의 이상이 된 반면 서구에서의 자연주의(naturalism)는 초자연적 존재나 표현을 배격하는 세계관으로 발달하여 임마누엘 칸트³⁾ 같은 철학자는 경험의 대상전체와 현상을 그렇게 불렀다. 그것이 오늘에는 자연과학으로 발전하여 생물의 현상이나 천문, 기상적인 것으로 섭수(攝受)되고 있는 것같이 여겨진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주의 도, 인간의 도를 자연과학의 범주로서 해석하려는 현대인은 이습우화에 나오는 방패의 양면을 보지 못하고 한쪽만으로 고집하는 편단(偏端)적 성격을 면치 못하는 감이 있다. 이것은 또한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을 무시한채 관념과 추리 일변도(一邊倒)로 넘어가는 과오가 있어서 역시 모든 관찰과 연구에는 방패의 양면을 고루 보는 것이 아니어서는

3) 칸트 : Kant Immanuel(1724~1804) 독일의 철학자,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력비판 등의 저서로 계몽주의를 완성하면서 독창적인 비판철학을 확립했다.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순사상의 증지 4개조는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되고 원점이 되는 시발점에서 이상세계를 성취완업(成就完業)하는 원리로 인간생활의 지표가 되고 과정(過程)의 길라잡이가 된다고 넉넉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는 과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얼음 속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족에서부터 열사(熱沙)에서 생활하는 아프리카인에게 이르기까지 차원이 낮은 종교에서 높은 차원의 종교가 생몰(生沒) 존멸(存滅)한 것이 무한하다.

그 가운데는 신에게 빌면 복을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살아서 잘하면 저승 좋은 곳에 간다는 등의 기복적 종교에서부터 우주와 인간의 도리를 밝혀 인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함께 생활의 규범을 가르치며 미래세(未來世)에 대한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는 고급종교가 있어 다수의 인간들이 안심입명과 구제의식의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너무 이론이 우화(寓話)적이며 또는 추상적이며, 일개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비과학 초자연적 또는 비논리적인 것, 또 논리가 너무 잡박(雜駁)한 것들이 있어 인간의 이성을 깨우쳐서 이해시키기보다 감성을 자극하여 선교, 포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허다한 것을 보고 있다.

여기에 도의 본질에 입각하여 정연한 이론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감성적으로 무한한 정서를 함양시키며 의지력으로 완성된 인격의 인간이 되게 하고 또 완성된 이상세계를 완성하게 할 수 있는 종교의 큰 버리(綱)를 설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대성(大聖) 증산과 정산이 제시한 증정사상(甌鼎思想)⁴⁾의 교의(教義)가 바로 그것이다.

그 차례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 우주와 도의 생기(生起), 발전, 유지, 완성을 일목요연하게 순서의 차질없이 가장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이상과 현실이 합일되고 천지인 3계가 통일되며 신과 인간과 동식물, 산하대지의 어별곤충까지 도의 일원(一員)이 되어 도의 구제함께 생의 환희를 누리게 하는 유일종교의 사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4) 증정사상 : 도조 증산의 사상을 정산이 계승 완성한 대순사상을 말함

기승전결(起承轉結)⁵⁾로 엮어 나가는 시율(詩律)의 신운(神韻)이 감돌고 3단 논법의 이론적인 결구(結構)와 함께 자연세계에서 출발하여 이상의 진경(眞境)으로 도달하는 과정(過程)이 명백하며 안심(安心)을 위주하는 동양인이나 안신(安身)을 위주하는 서구인이 다 함께 우러러 받들 원리적 진리가 이것이라고 단정해 말할 수 있는 이론이며 그런 이론의 종교교의인 것이다.

무극 곧 태극인 그 태극의 양의인 음양이 합덕하는 우주의 원리 위에 신인조화의 정신으로 인개위신(人皆爲神)의 경지가 되어 천지간의 생물, 무생물이 모두가 해원하고 상생하여 도가 나와 통하는 진경의 경지를 얻자는 인간 사회의 대원리가 신세기에 다시금 찬연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근일 전해오는 소식들은 서구인들 스스로가 자기네의 철학이나 종교사상의 막다른 골목을 인식하여 동양사상이 아니면 오늘의 인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심지어는 자연과학까지도 동양사상에 입각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실로 세계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 할 만하다.

II. 本 論

1. 음양합덕론(陰陽合德論)

종지의 첫째인 음양합덕 곧 태극양의의 상보(相補) 상합(相合)하는, 그 합덕이 도의 근원이며 우주 만유 생성 발전의 근원임을 굳이 거듭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음과 양의 양의의 체(體)에서 상합하여 합덕을 이루는 용(用)을 얻어서 성취되는 것은 참으로 우주진리의 오의(奧義)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우주 3계의 오의일 뿐 아니라, 인간 윤리도덕의 기저가 되는 상생, 상합, 상부, 상보(相補)의 규범도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 계속되는 종지의 3개조도 곧 이로써 생겨나고 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당시(唐詩)의 작시법, 7언에는 기·경·합·미(起頸頷尾)의 연구(聯句), 5언에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연구로 시를 짓는다.

1) 만유 생성의 대전제

태극의 양의 곧 음양은 자연과학적으로 우주원리의 모체가 되며 논리적으로는 우주 생성 발전의 대전제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동양인의 예지의 결정인 이 원리가 어떤 연원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상하고 발전하였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태극의 양의 곧 음과 양을 서구의 자연과학에서는 물리적으로 분석해서 원소로서 구별하고 거기에 미시(微視)적 연구를 가해서 원자, 그 원자에서 소립자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 사상은 태극의 양의인 음과 양으로 크게 나누고 거기서 세분해 나가는 법을 쓰는데 그것이 또한 자연과학의 분야 뿐 아닌 종교철학적인 도(道)와 같은 관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一陰一陽之謂道(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⁶⁾

이말은 주역 계사에 있는 말로써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활동하는 것이 자연법칙과 함께 원리 도덕의 원리가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먼저 자연현상에서부터 살펴보면 일원성신(日月星辰), 산하대지(山河大地)는 물론, 1초1목(一草一木), 비금주수(飛禽走獸), 어벌곤충(魚鼈昆蟲) 무엇하나가 음과 양으로 성립 또는 생성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그 생식(生殖)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크게는 천체(天體)의 태양계를 중심한 행성(行星)과 유성(遊星)의 운행이 음양의 원리(라기보다), 그 에너기로 이루어지고 미물의 개미새끼 한 마리의 작은 다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원리로서 밝히는 일이 종교학자나 철학자의 일이라면 그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것은 자연과학자의 몫이 된다. 그러니 다만 그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철학자의 몫이다.

이러한 태극음양의 원리가 정립(定立)된 것은 역경(易經), 곧 주역을 통해서였으니 주역을 통해서 일음일양이 도(道)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음양으로서 만유 생성의 체계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6) 주역 계사 소권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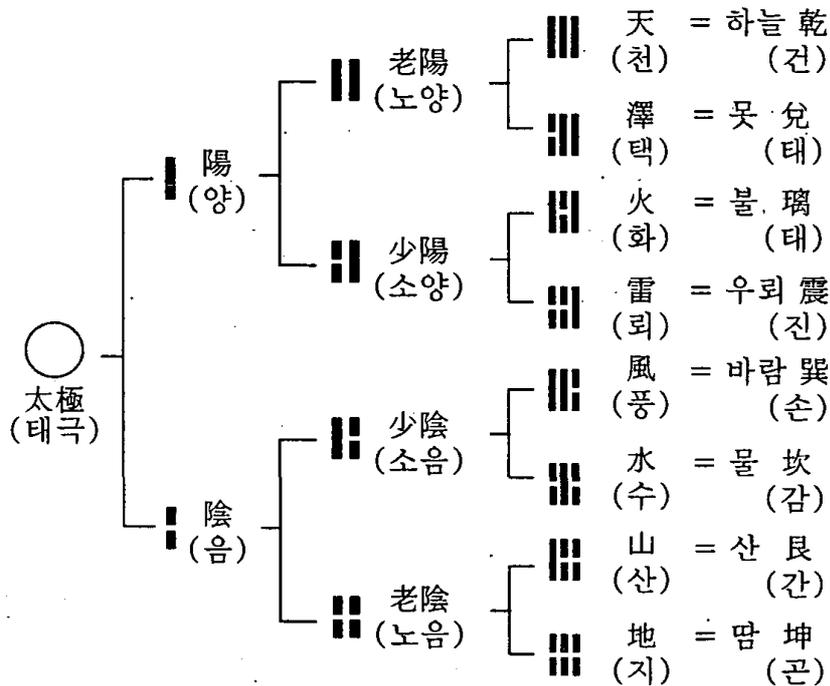
이의 상세한 해설은 이미 다른 논문에 발표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도표를 들어 해설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상(圖像) 또는 도표(圖表)들을 언석(言釋)이라는 언어나 문자 하나하나에 대한 훈고적(訓詁的)⁸⁾ 해석보다는 그 이론, 의미에 치중하는 의리적(義理的) 이석(理釋)의 방법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둔다.

주역에서는 태극을 대극(大極)이라고 하여 이론을 정립해 있으니

易有大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역에 대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가 4상을 생하고 4상이 8괘를 생하고 8괘가 길흉을 정하고 길흉이 대업을 정한다.)⁹⁾

이라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도표와 같다.

<태극 양의 4상 8괘도>



7) 언석은 언어와 문자의 해석인데 반하여 이석은 글자보다 그 속에 숨은 이치를 밝힌다.

8) 訓古라고도 하며 문자의 자구해석이 위주가 되는 지엽적 연구의 방법이다.

9) 주역 계사

참고 : 노자 도경 25장. 吾不知爲其名 字之曰道 ?爲之名曰大(여기서 우주의 큰 덩어리를 글자로 道라고 하고 이름을 大라고 한다고 해서 道와 大를 같은 뜻으로 쓴 것을 본다.)

역을 해설한 주역(또는 역경)은 3부작으로 되어 있다. 1부는 상경(上經), 2부는 하경(下經), 3부는 10익(十翼)이라고 하는 해설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10익이란 상단(上象), 하상(下象), 계사 上, 계사 下, 문언(文言), 설괘(說卦), 서괘(序卦), 잡괘(雜卦)의 10전(傳)으로 성립되어 있다.

역이 생겨난 것은 주(周)나라 이전 하(夏)에서 비롯해서(이때는 連山이라 함) 은(殷)나라(귀장(版藏)¹⁰)이라 함)를 거쳐 이후 주(周)에 와서 위의 해설과 같은 체계가 확립되었는 바 오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체계 같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구의 타지역에서는 반나체로 반듯한 문자와 문서의 기록조차 없을 때 이 영구불멸의 대철학을 인류사에 던져놓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류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이 이 사상이니 이것이 역사 3,4천전의 일이다.

그 때문에 주역이 우주의 원리를 음양 양의로 본 것만해도 우매하던 시대에 대기권 창공에 하늘이 있고 거기에 조물주, 창조주가 있어서 우주만사를 좌우한다고 하던 우매한 사상에서 벗어나 음과 양의 조화(造化=만들기도 하고 화육, 진화한다는 뜻)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연과학의 근원이 되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한 것은 실로 경악 찬탄할 동양사상이다.

그런 뜻에서 주역이 유교경전 4서(四書)에 이은 3경(三經)의 하나가 되어 경(經)으로 불리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후에 내려오면서 경서(經書)의 하나로 또 길흉복서(吉凶卜筮)의 해설서로 전해오던 4백년에 송(宋)대에 와서 대유학자로 이름이 있던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¹¹)가 태극도와 그 도설(圖說)을 내어놓아 이 이론이 널리 퍼지게 되니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오늘에 이르러서도 성행(盛行)하고 있다.

그리고 북송(北宋)의 주자(周子)가 체계화한 백년후에 태극의 이론, 그 가운데 음양을 성명(性命)과 이기(理氣)로 한 철학적 논리에 입각하여 남송(南宋)의 주자(朱子) 곧 주희(周熹=호 晦菴)¹²)에 의해 집대성되어 성리학(性

10) 夏의 連山, 殷의 版藏 모두 현재는 전하지 않음

11) 주돈이 : 북송(北宋)의 학자, 태극도설, 통서등의 저서로 음양의 이론을 정립하여 성리학의 비조로 불리우고 있다.(염계, 周子로 불리움)

12) 주희 : 송대의 학자, 성리학의 창설자로서 동양철학의 원조로 성리학을 주자학·정주학으로 부르기까지 한다.

理學)¹³⁾의 철학으로 발전하여 한국에서는 퇴계(退溪), 율곡(栗谷)같은 대가(大家)를 낳게 되었다.

주렴계의 태극도는 본 논총 제2집에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설로서 대신하려 한다. 먼저 ‘무극이 태극과 같다(無極而太極 : 而자를 고대에는 如자와 같이 사용했다)’이라고 해서 주역의 대극(大極)이 태극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大자와 太자가 동의(同義) 동자(同字)로 통용되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된 것이니 우리 지명에도 한밭 太田이 大田으로 자연변이된 실례가 있다.

다만 주역에 없던 무극(無極)이 태극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논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염계의 창작이 아닌 것이니 도가(道家), 그 가운데도 거장(巨匠)이었던 진부(陳搏 : 자希夷)¹⁴⁾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태극도의 도상(圖像)도 희이의 원안이라는 것이 정설화(定說化)해 있는데 다만 유가에서 도가가 사용하던 도형을 변개 임용(仍用)한 것이다.(그래서 도교사상의 무(無)가 등장한 것 같다)

음은 정(靜)하고 양은 동(動)하여 수·화·금·목·토(水火金木土)의 5행(五行)을 생(生)하여 건(乾)의 도(道)는 남성이 되고 곤(坤)의 도는 여성이 되어 그로써 만물이 화생(化生)한다고 간단히 부서(附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설 곧 태극도설에는 오늘까지도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탁설(卓說)이 전개된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무극은 태극과 같으니 태극이 동해서 양을 낳고 동이 극하면 정이 된다. 정하여 음을 낳고 정이 지극하면 다시 동한다. 한 움직임 한 고요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 양의가 선다. 양이 변해 음과 합하여 수·화·목·금·토를 생하니 5기(氣)가 순탄하게 퍼지고 4시(時)가 진행된다.)¹⁵⁾

13) 성리학 : 정주학·주자학으로도 불리우는데 음양설을 성리(性理)로 해석하여 동양철학을 형성했다.

14) 진부 : 자는 희이(希夷) 송대 도가의 거장, 음양을 원리로 하는 상(相) 역(易) 명리(命理)등 학에 많은 저서가 있다.

15) 주렴계 태극도설의 일부

계속해서 더 많은 해설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태극도설의 일부로서도 그 원리 원칙의 골자의구조가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을 구성하는 8괘는 도상에도 없고 해설에도 없어서 주역과 도설의 관점이 다른데 후세에 와서 이 둘이 합쳐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무튼 태극의 양의(兩儀) 음과 양은 하늘과 땅에서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 심지어는 손등과 손바닥, 옷천의 겉과 안등 적용되지 않는데가 없이 부합되니 그 모든 것을 음양이며 음양의 조화라고 유추(類推)한 동양의 예지야말로 자랑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 원칙이야말로 우주 만유생성이론의 대전제로서 이에 의거하지 않은 천체나 생명이나 또 도덕 윤리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태극의 체(體)와 합덕(合德)의 용(用)

음양합덕의 음양은 위에서와 같이 간단한 이론을 말했지만 합덕이란 용어의 주체가 되는 덕이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덕(德)을 합한다는 그 덕의 성격을 생각하는 것이니 주역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道 以通神明之德(건은 양한 것이고 곤은 음한 것이다. 음양이 덕을 합해야 굳센 것과 유(柔)한 것이 몸체가 된다. 이로써 천지의 도를 체득(體得)하고 이로써 신명의 덕(德)에 통한다)16)

德言盛 禮言恭(덕은 풍성함을 말하고 예는 공경함을 말한다)17)

天地之大德曰生(천지의 큰 덕은 생(生)함을 말한다)18)

너무 긴말을 늘어 놓을 것 없이 음양합덕에서 도를 알고 덕을 합하는 그 덕이 풍성한 것이며 생(生)하는 것이라는 개념정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5덕(五德)이라고 해서 5행 하나하나 수덕(水德) 목덕(木德) 화덕(火德)등으로

16) 주역계사 하권 제6장

17) 주역계사 상권 제8장

18) 주역계사 하권 제1장

도 설한 것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노자 도덕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비록 효용성(效用性)을 말한 것이기는 해도 우리에게 극명하게 도와 덕을 구별해서 잘 교시하고 있다.

道生之 德育之 長之 育之 成之 熟之 養之 覆之(도는 생하고 덕은 기른다. 생장케 하고 생육케 하고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보양하고 보호한다.)¹⁹⁾

여기서 도가 낳는 뉘를 하고 성장 양육 보호하는 것은 덕의 뉘아치인 것을 가르쳤다.

다른 음양관계의 문헌에서도 이론이 있지만은 우리는 태극양의이 음양을 체(體)로 보고 합덕의 현상을 용(用)으로 보는 동시에 증산이 가르친 정음정양(正陰正陽)을 용(用)에 앞선 상(相)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증산 재세시 음양도수를 보면서 아내 12을 두겠다든 차경석(車京石)과는 달리 1음1양을 주장하는 문공신(文公愐)에게 한 말씀에서 정음양(正陰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정음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正心)으로 수련하라.²⁰⁾

이 정음정양이란 남녀의 성적(性的) 결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乾道는 成男하고 坤道는 成女하여 萬物이 化生한다'는 주역이나 태극도설의 가르침처럼 남성의 양기(陽氣)와 여성의 음기(陰氣)로서 만물이 생성 화육하는 근본적 예증(例證)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정음양(正陰陽)의 정합덕(正合德)이 우주 천지의 공도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육체와 정신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가 태극 정음정양의 합덕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생존과 생활의 영위(營爲)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 노자 도덕경 51 養德

20) 전경 공사 제2장 17절

2. 신인조화론

신인조화라는 대순의 교의가 과학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인간, 그 가운데도 젊은 세대, 또 가운데도 무신론적인 경향을 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선뜻 수용되지 않는 교의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무슨 무속적(巫俗的)인 접신(接神)이나 빙의(憑依)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최고의 예지와 지성에서 우러나온 사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몸가까이 인식할 수 있는 고급, 고상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먼저 대순사상이 지닌 신관을 이해하면 의문과 흥미가 가시어지는 동시에 건전한 신인조화의 의식이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대순사상의 신관(神觀)

대순사상의 신관은 동양전래의 신관이 기저(基底)가 되어 있으니 서구인의 그것과는 취향(趣向)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구인의 다수 거기에 중동(中東) 국가들까지도 그들은 1신론(一神論)에 입각한 유일신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 오늘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사회사상과는 아주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기에 다신론(多神論), 범신론(汎神論)적인 경향의 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에도 그런 유가 있어도 주류는 유일신 사상이 된다.

거기에 반해서 동양의 제민족은 다신론에 입각하면서도 그 신들 가운데 수장(首長)이 되는 최고신을 인정하는 것이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동양에서는 인간의 사후존재를 신으로 믿고 받드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돌아간 자기 조상을 신앙의 주신(主神)으로 섬기는 종교까지가 있다.

일단 여러 신의 권위나 성격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유별(類別)해본다.

가. 유일신류

여호와(야웨), 엘로힘, 알라, 제우스(쥬피터)등

※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우주 전체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도 있다.

나. 최고신류

하느님(한울님, 하느님, 하나님), 환인(桓因:한국), 천조대신(天照大神:일본)

※ 각민족 또는 부족의 조상을 자기네의 최고신이라고 믿고 이쁜 일이 파다(頗多)하다.

다. 자연현상의 신격화

태양신, 별신, 구름신, 바람신, 뇌신, 우신, 산신, 수목신, 강신, 해신(용왕), 지신, 조왕신

※ 그밖에 5방신장, 28성수신, 24절후신 등도 있다.

라. 선령신(先靈神)

※ 인간의 망령(亡靈)을 신명으로 받든다.

1. 자기민족, 국가의 조상 단군, 천조대신(天照大神)²¹⁾
2. 위대한 성현 또는 장군 관운장, 태상노군(太上老君)²²⁾ 노기(乃木希典)²³⁾ 도-고-(東郷平八郎)²⁴⁾등 (인간의 망령을 영원히 추모 기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밖에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대상이 허다한 것이다. 하나의 종교가 형성된 곳에는 반드시 신으로 모시는 대상이 있을 것이며 신내림 또는 신들림을 당한 무격(巫覡)들에게도 다 주신(主神)이 있는 것이기에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지마는 굳이 찾아서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신이란 바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인간의 속에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신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회교의 종교사상이 보급되기 이전의 신관이었고 지금은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 신이 천지우주를 만들었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被造物)로서 그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절대적 신관이고, 인생관이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동양은 우주 자연 음양의 조화(造化)를 믿는 대신 어떤 한 신이 우주전체 또 만물을 창조했다든지 하는 비과학적인 사상은 발상도 없거니와 그런 사상의 발전도 없었다. 서구인은 지금도 그들의 신앙문답서 제 1절에

21) 천조대신 : 아마테라스오미가미(인간이름 : 大日貴靈女尊) 일본의 국조

22) 태상노군 : 노자의 사후에 모시는 이름

23) 노기 : 일본의 육군대장(러일전쟁의 공이 있음)

24) 도-고- : 일본의 해군대장(러일전쟁의 공이 있음)

문 :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나?

답 : 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²⁵⁾

하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성직자가 되자면 이 문답서를 다 외워서 시인하지 않고는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대순사상의 신관은 어떤 것인가 하는 논의를 간단히 생각해 본다. 여기에는 먼저 동양인이 지니는 공통된 신관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 토대 위에 대순사상이 지닌 독특한 신관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양의 음양사상으로서 3극(三極)인 천·지·인은 곧 근본이 하나인 것으로 보아서 인간은 우주의 부분인 동시에 하나의 소우주로 보아 온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 그 자체가 신적(神的)존재로서 천신(天神) 지기(地祇)로 숭앙되는 동시에 인간에게도 신성(神性)이 있고 나아가서는 바로神明(神明)이 깃들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에는 그저 흥겹다는 뜻으로 쓰이는 혐(嫌)이 있지만 우리가 항용(恒用)하는 '神明난다' '신난다'는 말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정신(精神) 심신(心神)의神明(神明)이 표출한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外界)나 외부에 있는 신을 찾기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재신(內在神)을 찾아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증 속에서 움직일 때 재주있는 아이는 신동(神童)이 되고 뛰어난 사람은 신인(神人)이 된다. 뛰어난 의원은 신의(神醫) 신술(神術) 기예인은 신기(神技)의 신품(神品)을 만들고 학자는 신지(神智) 시인은 신운(神韻)이 우러나는神通(神通)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곧 인내천(人乃天)이 되고 인개성불(人皆成佛) 인즉신(人卽神)의 경지로 인간을 끌어 올릴 것이니 화학적(化學的)으로 보아서 인간 하나의 값이 2달러 몇센트가 된다는 과학적 시각과는 극과 극이 되는 인간의 가치관을 체득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상제로 받드는 증산·정산(甞山鼎山) 양위에게 대한 이론도 이러한 동양적 신관으로서는 쉽사리 이해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것은 위에서도 말했듯 인즉신(人卽神)의 바탕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신

25)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절(신·구교 공통)

이고 신은 죽은 인간이란 해답을 얻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 곧 인중인(人中人)은 곧 신중신(神中神)인 것이니 증·정양위를 최고신인 상제로 봉대(奉戴)하는 것이 하등의 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아무튼 인즉신-신즉인(人卽神-神卽人)이란 관점 아래 천지의 운도를 뜯어고치고 우주적인 자연현상과 국제적인 또는 국가 민족적인, 그리고 적개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까지 공사(公事)로서 처리할 수 있는 신인-인신(神人-人神)을 상제로 모셔 받드는 일이 대순사상의 상제관이 되는 것이다.

2) 신과 인간의 조화(調化), 그 의의

대순사상 제2강(第二綱)의 신인조화란 말은 제1강의 음양합덕을 기조로 해서 성립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명동곡(異名同曲)의 같은 뜻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신명과 인간의 속성을 음양으로 나누면 신은 음이고 인간은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신과 인간의 조화란 말은 곧 음양합덕의 한 표본이 된다고 볼 것이니 비단 이 신인조화뿐 아닌 우주의 무슨 사물이나 사상(事象)이 음양의 원리를 떠나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화(調化)란 말의 뜻을 몰라서 당혹하는 이가 있기에 한 말을 보태면 조(調)는 고를 調로 읽는 글자인데 조화(調和)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고 화는 和자가 아닌 化자를 쓴 조어(造語)여서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될 化자가 조화(造化) 화육(化育)의 뜻을 지녀 있기 때문에 調化란 조화(調和)로서 조화(造化)한다는 것이(음양의) 합덕(合德)이란 말과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인조화가 어떤 것인가 하면 먼저 위에서 말한 인간 자신의 내재신(內在神)의 경우를 들 것이니 우리가 어떤 사실에 직면하였을 때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그때 마음의 신이 작용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이 탐이 나서 저걸 훔쳐보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악심(惡心) 곧 악신(惡神)의 작용이고 그런짓은 못쓰는 악업(惡業)이라고 만류하는

것은 선심(善心) 선신(善神)의 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심신(心神) 정신(精神)의 작용인 바 이 내재신은 인간 스스로의 신성(神性)이 작용하는 것이지만 외계(外界) 곧 우주 3계에 가득한 신명들이 있어서 이 신들과의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한 논의도 성립된다.

먼저 대순의 도인이 된 사람은 주신(主神)으로 봉대하는 양위상제에게의 신앙과 함께 그에 대한 귀의심(皈依心) 곧 신앙심을 돈독히 하여 상제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합덕(合德) 조화(調和)로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창출해 내는데 까지 이르지 않고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지가 종지제4강이 규정한 도통진경(道通眞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음은 오늘의 일반인의 경우 옛사람과 달라서 신명의 존재나 그 영향력은 물론 너무 기계문명이나 인간의 능력 일변도로 흐르는 경향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음양이 조화되고 이상과 현실, 정신과 육체, 신명과 인간이 조화하여야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않아서는 물질 일변도의 21세기는 글자 그대로인 진멸(殄滅)의 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옛날처럼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고 운명과 운도에 매여있다는 비과학적 미신의 종용(懲慝)이 아니라, 천지의 공도에 따라 순리로 생활하고 자연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신인조화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인조화니 하는 구시대적 용어가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인간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으며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것인가를 고구하여 그 진정한 의의를 파악한 다음 오늘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니 신명과 인간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조화의 활용이 있을 때 21세기의 역사가 바른 궤도속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끝으로 무속인 최연순이란 여자가 한 말을 붙인다. 그는 신문지상에서 ‘신인의 조화를 이룬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를 위해 일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⁶⁾ 일개 무속인의 말이라도 도를 이해 체인한 사람의 말이라 할 것이다.

26) 한국 경제 98년 11월 3일자

3. 해원상생론

대순사상의 셋째번 강령이 해원상생인바 이것은 세계 종교사상 윤리 도덕적 규범으로 이 이상 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형이상적인 신비주의와 함께 대사회적인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서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慈)와 비(悲), 기독교의 사랑등이 인류사회에 끼친 공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로서 철학적 사상이나 신비적 행위만 있고 도덕적 덕목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해원상생의 덕목이야 말로 인류고금에 드물게 볼 수 있는 그것이며 더구나 가장 한국적인 근본 원리가 된다고 할 것이니 대순의 도인이 아닌 민족의 모두가 신불신(信不信)의 신앙문제를 떠나서 이 윤리덕목을 체인실천하여야만 할 지고(至高)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1) 원(冤)의 본질(本質)

원과 한을 합해서 원한, 원과 척을 합해서 원척, 원과 왕(枉)을 합해서 원왕, 원에 망(望)을 합해서 원망 등의 말이 있지만 그 주(主)가 되는 것은 원이며 다른 말은 원에 합성되어 사용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원의 한자는 冤이 그 대표가 되는데 속자(俗字)로서 冤이라고 써도 같은 뜻이다. 怨의 경우도 冤이 명사로 쓰이던 반면 怨은 동사로 쓰여서 '원망한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이 3글자가 서로 통용되는 것이 실정이다.

'척'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근심'을 나타내는 慼자를 차용하는 일이 많지 마는 본 뜻과는 다르다.

전경에서 증산은 원의 시초를 중국 고대 요(堯) 임금과 그 아들 단주(丹朱)에게 두고 있다.

원(冤)의 역사의 첫장인 요의 아들 단주의 원을 풀면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²⁷⁾

증산은 이것을 원의 첫 역사라고 말했지만 이 사실의 4세기 앞선 치우(蚩尤)의 난 때 생겨난 원의 역사도 있으며 또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것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이 원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에게 신격(神格)을 부여하여 봉대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가 행한 언행에 대해서도 절대 무류(無謬)라고 믿는 것은 신앙자의 태도로서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연구적 견지에서는 이성적인 비판정신이 살아 있어야만 정당하고 공평한 인식이 되어 그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으로서의 진면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요(堯) 임금의 순(舜)에게 황위(皇位)를 선양(禪讓)함으로서 생기는 단주(丹朱)의 사실 같은 것은 당시에 원의 효시라고 생각하던 통설(通說)을 증산이 교화의 방편으로 임용(仍用)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증산이 지상에 출현하여서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 같은 유의 인간으로 생활한 것이지만 그 출중한 종교감각 때문에 상제로 봉대하기까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인식할 때 그의 진면목이 약여(躍如)한 것이지 연역적으로 아예 그는 상제였다고 하는 것은 자칫 인간의 이성적 이지(理智)를 뒤로 제쳐 둔 맹신(盲信)에 함입(陷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한마디 보태어 두는 바이다.

원의 본질을 생각하자면 원이 생겨나는 동기와 원인을 먼저 찾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인을 찾아보면 원(冤)이니 한(限)이니 하는 본질과 또 그 유형을 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성격을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성품을 선하다고 본 성선설(性善說)이나 악하다고 본 성악설 모두가 일방적인 극론(極論)인 것이 선과 악은 일광(日光)과 일영(日影) 곧 빛과 그림자로 우화에 나오는 방패의 양쪽을 안 보고 한 쪽으로 우기는 우직한 의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7정(七情)²⁸⁾이라고 해

27) 전경 공사 제3장 제4절

28) 七情 : 인간의 본성을 7가지로 말한 것인데 유교와 불교가 약간 다르다.

서 유교 경서 예기(禮記)에서는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으로, 불교경서 석씨요람(釋氏要覽)에서 희·노·우·구·애·증·욕(喜怒哀憂懼愛增欲)이라고 말했듯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타고난 본능적 성격이 있어 성내고 미워하는 심정이 생겨나게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고 성나는 것이 일시적으로 폭발했다가 사그러들 정도면 이것은 원(冤=속자로 冤자가 있다)이라는 명사로서 규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다만 원(怨=원망한다는 동사의 뜻, 그러나 현재에는 冤·冤·怨이 거의 같은 뜻으로 혼용되고 있다)이라는 행동적 표현에 그칠 것이다.

그러면 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 7정의 미움(惡)과 성냄(怒)에 있다고 볼 때 이 대상의 거개(擧皆)가 인간이지만 인간이외의 신도 되고 또 비금주수(飛禽走獸)의 동물도 되고 또 무생물인 산과 물, 바위, 나무도 되며 또 정신적인 사상도 있고 식량과 화폐같은 것도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고 기업주에게 항의하고 또 타민족, 타국가에 받은 수모(羞侮)가 원이 되어 생명을 내어 걸고 투쟁하는 것이니 국가적인 의사, 열사의 영령도 다 이런 원한에서 생겨난 사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 자연과 인간

- 신과 인간

- 인간과 인간

- 동식물과 인간

- 민족과 민족 (또는 개인)

- 국가와 국가 (또는 국민)

-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원)

- 종교와 종교 (또는 종교인)가 다양한 상관관계로서의 결원(結怨)이 생겨나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원적이 생겨나고 있다.

더구나 IMF라는 경제의 비상체제하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에 따른 많은 원과 한을 언제 어떻게 청산할지가 자못 걱정스럽기만 한 것이다.

2) 원(冤)의 해결

인간만사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자연법칙과 같은 이치다. 때문에 원과 한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해원(解冤)과 해한(解恨)이 있을 것이니 인간의 이 원한을 해결하려는 것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과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이란 관념도 따져 보면 원한해결 곧 해원의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해원상생이라고 해서 종지의 하나, 그것도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전(轉)의 위치에 설정되고 있으며 증산재세시에 많은 공사가운데 해원공사란 것이 중요한 위치를 점(占)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해원이 지니고 있는 비중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해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증산과 같은 상제로 추존을 받는 분은 공사(公事) 곧 하나의 사안(事案)으로서 처리하면 끝나는 일이 되지만 일반 인간에겐 그렇질 못하다.

내가 남을 원망하는 경우나 또 내가 남에게 원망을 받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 원칙은 한가지다.

이것을 고전에서 찾아보면 공부자는 논어에서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무엇으로 덕을 갚을 것인가. 곧음으로써 원을 갚을 것이며 덕으로써 덕을 갚을 것이니라)²⁹⁾

이 위의 글에서는 누가 공자에게 묻기를 ‘以德報怨 何如(덕으로써 덕을 갚으면 어떻습니까)’하고 묻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 대한 대답으로 덕은 덕으로 갚는 것이니 원한에는 곧은 것으로써 갚는 것(以直報怨)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자는 포괄적이다. 공자의 현실주의적인 사상과는 다르게 초현실적으로 가르친 것이니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大小 多少 報怨以德(함이 없음을 하고 일없음을 일하고 맛없음을 맛본다.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니

29) 논어 헌문(憲問)

원한 갚기를 덕으로써 할지니라)³⁰⁾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두 성인의 말씀을 종합할 때 원왕(冤枉)을 우선 바르고 곧게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너는 내게 원한으로 대해도 나는 네게 덕으로써 갚는다하여 두가지를 병용한다고 하면 완전무결한 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순사상을 신앙하는 도인들의 태도는 어떤데 입각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하나의 명제로 하여 고구하면 그것은 대순의 신앙 그 자체가 해원의 원천이니 바로 종지 4개강(四個綱) 그대로의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첫째가 음양합덕의 합덕사상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론이 아니고 이상적인 원칙론이니 공부자의 직(直)은 원칙에 부수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전제없는 합덕이 아니라 음과 양의 조절로서 이루어지는 덕이기 때문이니 음양이 융화 조절된 합덕 앞에 은원(恩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애증(愛憎)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다음 3개강목(綱目)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설명이 요치않게 모두가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만 해도 그런 것이 인간에게 내재한 신명(또는 신성(神性))이라고 해도 좋다)이든, 3계에 변재(遍在)한 모든 신과 신장들과 인간이 조화(調和)된 가운데서 화생(化生)하는 경지라면 거기에 원이니 한이니 척이니 한 것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 아닌가.

제3강인 해원상생은 바로 본론의 주명제니까 재론할 것 없고 넷째 도통진경이야 말로 도의 최고이상으로 하는 무상의 진세계인 것으로 이런 경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야 무슨 은원이 있을 것도 없고 4단7정(四端³¹⁾七情)의 인간 성정(性情)이 작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해원의 근원적인 척도는 4개종지를 신앙하는 신심이 될 것이지만

30) 노자 덕경 63 恩始

31) 4단 : 인의예지의 단(端)-惻·羞·讓·是非, 맹자 公孫丑 上

는 이러한 원칙 아래 때에 따라 사실에 따라 나와 남 사이의 원칙을 해소하는 것을 수행의 요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종교인의 태도일 것이다.

세계의 다른 종교에서도 해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화해(和解)라는 말을 고조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둔다.

너희들 천지만물과 화해하라³²⁾

고 가르친 일본 신종교의 교주 다니구찌(谷口雅春)의 말이 있어서 인간계는 물론 우주 전체의 만유와 화합 화해하는 것을 교의로 삼고 있는 세이쥬노이에(生長之敎)라는 신종교도 있다.

또 기독교 성서에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형제가 너희에게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³³⁾

한 말도 있으며 논어에 ‘以直報怨(곧음으로써 원수를 갚으라)’이라는 말이나 도덕경에 ‘報怨以德(원한 갚기를 덕으로써 하라)’이라고 한 것이나 불교의 경전 무수히 등장하는 인연설과 화합의 정신이 화해, 해원의 밑받침이 되어 있는 교의가 모두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동서양 각종교의 화해, 화합등의 교설이 대순사상의 해원 상생이란 교의 앞에는 무색해지는 것이니 유사 이래 9백여회의 외침을 받다가 일제에 근 40년을 식민지화했던 쓰라린 역사를 지낸 한민족에게는 다른 무슨 말이 그렇게 심금에 와 부딪히는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반상(班常)의 계급과 남녀의 차별에 서린 원한을 씻어주는데는 미흡하다. 거기에 해원상생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어건 대순사상이야말로 민족 전체 곧 북녘의 굶주리고 천대받는 서민대중과 또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차별 받는 해외동포에게까지 이렇게 속 시원한 한풀이, 살풀이의 신명난 구원의 복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감격까지 나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는 평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마는 악소국의 국민은 물론이고 강대국에서도 천대받는 국민들에게 재생과 도약의 원동

32) 세이쥬노이에(生長之家)의 경전 ‘생명의 실상’에서

33) 신약 마태복음 9장 12절

력이 될 슬로건이 바로 해원상생이라고 넉넉히 말할 수 있다.

3) 생(生) 극(劑)의 대결구조

상말의 속담같은 것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을 종종 듣는다. 살아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고 숨이 넘어가서 죽음(死)의 경지로 들어가면 ‘주검(屍)’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생과 사의 과정에는 노(老) 병(病)이 있어서 생·노·병·사로 인간 일생을 규정한 것이 불교의 인생관이니 1년 4시의 춘·하·추·동과도 대비가 된다. 전경(典經)에는 이것을 생·장·염·장(生長斂藏)의 4의(四義)로 표현한 것이 있다.

아무튼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사물(事物)의 생존 또는 생육의 과정에서 생기(生起) 멸실(滅失)하고 영고성쇠(榮枯盛衰)하는 과정을 음양 5행에서는 우주생성의 5원소인 수·화·금·목·토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아는 것이지만 간단히 도해로 설명하면

相生 水→木→火→土→金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相剋 水→火→金→木→土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木剋土)

우주의 만유가 이 5행이란 원소로서 조화(造化)된 것이기에 이 5개 원소 서로가 지닌 속성과 질서에 따라 서로를 생육하고 부조하고 또 반대되게 죽이고 누르고 하는 작용의 그 조화와 조작의 신비로운 법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음양5행론이다.

이 음양5행의 상생이론이 윤리 도덕에 이용된 것은 실로 구천상제인 증산에게서 효시(嚆矢)가 되는 것이니 과연 그 혜안(慧眼)에 감복한다.

또 해원과 함께 하나의 숙어(熟語)를 만들어서 해원상생이라는 종지를 구성한 옥황상제 정산 또한 종교의 위인인 동시에 천재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고 넉넉히 말할 수 있다.

이 두분 양위상제의 언행 가운데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를 전경에서 찾아 인용한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품고 상생의 도(相生之道)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³⁴⁾(※ 증산)

도주께서 통사동에 계실 때 어느날 ‘吾道者 今不聞 古不聞之道(우리 도는 이제도 듣지 못하고 옛날에도 듣지 못한 도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사람들을 앞에 모우고 무극대운의 해원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를 설법하시어 도를 밝혀 주셨도다.³⁵⁾(※ 정산)

이 외에도 많은 예문을 들 수 있지만 위의 2구절만 보아도 양위상제의 도(종교) 그 자체가 상생의 도임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오늘도 모든 도인이 이 해원상생의 대도를 믿고 닦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회란 곧 해원상생의 대도며 대순사상의 중추(中樞)가 해원상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4) 해원상생의 시대적 의의

해원과 상생, 또는 해원상생이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며 이 사상이 오늘의 세계를 개조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뜻에서 다음 몇가지로 고찰 천착해보는 것이다.

먼저 해원과 상생의 상관관계다. 위에서도 천지공사 곧 3계공사를 하는 코스가 반드시 먼저 해원이 있는 다음 상생이 따른다는 합리적인 면을 볼 수 있으니 해원이 없이는 상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론이다. 그것이 상극에서 원한이 생기는 역코스로서 해원에서 상생이 생겨서 水 火의 상극현상이 水生火로 변개된다는 것을 전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해원상생 그 자체가 인간의 성정(性情)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해원은 인간의 신성(神性)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 그것을 해원으로 풀게 되

34) 전경 공사 1장 3절

35) 전경 교운 2장 18절

면 5행이 가르치는 상생(상극이 없는)의 대도로 들어가는 큰 진리를 세계의 만인간이 배움직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해원과 상생 또 그 둘이 복합된 해원상생이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인간들에게 왜 꼭 소중한 진리가 되는지를 생각하여 이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사상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먼저 개인의 인격형성과 심성수양에 이보다 더 높은 덕목이 없다. 우리는 가끔 타인에게 대한 불신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에 따른 증오와 함께 원망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모두 원이요 척의 첫걸음이니 결원을 해서 해원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인간에게나 모든 사물에 긍정적으로 상대하는 예방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이 남의 원망의 적(的)이 되지 않게 삼가는 것이 군자의 할 일이며 도인이 취할 태도며 보살이 지낼 마음인 것이다.

기독교 성서에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원한있는 사람과 먼저 화해한 후에 하라고 했지마는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慈)와 비(悲), 기독교의 애(愛)란 것이 원칙의 답이 가로 막힌 마음에 통할 이치가 없다.

거기에 먼저 그 막힌 벽의 원을 푸는 해원의 공사가 있어야만 하는 이 해원상생의 위대한 도리를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해원상생의 도리는 대아(對我)적 이기보다는 대타(對他)적인 것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보다 더 수승(殊勝)한 덕목이 있을 수 없으니 이 해원상생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종교의 덕목보다 또 현실의 원칙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98년 12월에 자신의 신상문제로 말썽이 많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규타결을 위한 평화회담의 재개를 주선한다고 하였지마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 2개의 민족적 국가적 원한이 켜켜이 쌓여 그의 해결이 없는 이상 화해가 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남의 사정 말할 것없이 우리 국내의 정치계에서 여당이니 야당이니하고 한말로 쉽게 말하지만 각 정당과 정파 사이에 건국 50년간에 얼키고 설킨

원과 한과 척이 건전한 민족정기에 입각하여 해원, 화평의 심성으로 의식개조 개변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권모 술수 파당의 정체게임이나 정치경쟁의 상투(相鬪)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래가지고는 민주주의고 정당정치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자뿐이 아닐까 하는 것이 기우아닌 걱정이다.

거기에 경제도 마찬가지다. 극도의 빈곤에서는 한걸음 나섰다고 해도 가진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여전히 원칙의 골을 파놓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물러갔다고 해도 일반 근로자의 심저에는 자연발생적 사회의식의 불평불만과 권익투쟁의욕이 사그러질 수가 없다고 본다.

IMF체제 아래 전대비문의 온갖범죄 그것도 교통수단과 화약무기를 이용하고 밀수, 마약등 아주 선진화형의 그것들이 미국의 할렘가를 닮아가는데 이 구석구석이 쌓인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의 번영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라 할 수 없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다.

상생하는 비약과 개혁도 필요하며 또 그렇게 변역(變易)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지마는 그에 선행되는 개혁의 준비가 꼬이고 엷힌 원칙의 해결 곧 해원이 있어야 할 것이니 쌓인 원칙을 제쳐두고 왜 함께 잘살자고 하는데 말을 안듣느냐고 해봤자 정치가 주입식 교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부와 국민, 자본가와 노동자, 학교와 학생,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 이 나라의 구석구석 쌓여있는 원과 척이 풀어 없어진 후에 상생(相生) 상합(相合) 상부(相扶) 상자(相資)하는 국가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해원상생이 하나의 국가훈(國家訓)처럼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원상생은 1개국가의 경영에만 소요되는 진리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민족과 국가, 그리고 지구중생들을 평화, 평등, 자유, 민주주의 길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는데 새로운 세기적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4. 도통진경론

대순의 종지(宗旨) 4강령의 마지막 넷째번 강목이 도통진경이다.

이러한 배열이 마치 논법(論法)의 결론과도 같고 작시법(作詩法)의 기·

승·전·결(起承轉結)로 배열하는 연구(聯句)와도 대응한다는 것은 모두(冒頭)에서 말한 바 같다.

도통진경이란 어휘 또한 과거에 있던 도의 극치적 완성을 말하는 도통이란 단어에 진리경(眞理境) 진실경(眞實境)의 약어(略語)인 진경을 복합시킨 도통진경이라는 교의를 설정한 옥황상제로 봉대하는 도주 정산의 종교적 위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도통진경의 말뜻은 ‘도가(한문문법으로 도가 주어가 됨) 통한 참경지’란 뜻인데 ‘도가 통하면 참경지’라고 풀어도 근본 뜻은 변하지 않는다.

도통은 ‘도가 통해지는 것’ 통도(通道)는 ‘내가 도를 깨달아 통하는 것’이 되어 관념이 다르게 된다.

그것은 불교처럼 스스로 깨닫는다(自覺)는 종교는 도통이란 말을 쓸 수가 없고 천도교나 증산교(정산계도 합해서)와 같이 ‘지극한 기가 이제 이르도다. 원컨데 크게 내리소서(至氣今至 願爲大降)’하는 기도문 [呪] 을 염송하는 종교는 대강(大降)하는 도의 기가 내리는 결과가 도통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해둔다.

1) 도(道)의 연원과 본질

도가 내게 통해진다는 도통의 연원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도란 우주의 공도(公道) 곧 대자연의 운도법칙과 또 공평무사한 천도(天道)를 이르고 있으니

一陰一陽之謂道(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 이른다. 또는 한음과 한양을 도라 이른다.)³⁶⁾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르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이른다.)³⁷⁾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 天道成 地道成(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명과 인간이 서로 통한 연후에 천도가 이루고 지도가 이루어진다.)³⁸⁾

36) 주역 계사 상권 제5장

37) 중용 제1장

등의 예문에서 처음 주역 계사에서는 일음일양이 도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셋째번 도주 정산이 설한 음양경에서는 음양의 상합(곧 합덕)과 신인의 상통(곧 조화)으로 천도, 지도의 모든 도가 이루어진다고 설해 있다.

둘째번 중용(中庸)에 있는 말은 천도, 지도가 아닌 인도(또는 도덕이라고 해도 좋은)로서 첫째, 셋째 예문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 명하는 성(性)을 따르는(率=따르다) 것을 도라고 하였다. 그러니 우주 공도(公道)의 운도(運度) 같은 것과는 다른 윤리도덕적인 인도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대순사상이 궁극적으로 추궁하는 도통이란 인간의 도덕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한 부분이 될 뿐이고 위에서 말했듯 하늘의 지기(至氣)가 대강(大降)하는 것을 정종(正宗)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도인들이 순차적으로 도장(道場)의 공부실에 참집하여 시천주(侍天主)를 염송하며 수련을 하고 그 공부가 끝난 도인들은 우선 초강을 필해서 초강식에 참여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도의 형성을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사람은 땅을 본받고(이때의 法자는 본받는다)로 동사(動詞)가 된다)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³⁸⁾

이라고 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천지인의 법이 도에서 나오고 도는 자연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이 자연이란 오늘의 자연과학이란 자연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근원인 자연(불교에서는 自然法爾, 法爾自然이라고도 한다)이며 그 자연이 바로 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천도, 지도, 인도의 법칙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자연이며 도인 근원이 또한 주역의 1음1양이라고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것과 동일체가 된다.

그러면 이 도의 결론적인 해답은 무엇이며 또 대순사상에서의도는 또 무엇인가, 도통에 앞서 도의 개념과악이 선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전경을 중심한 증산·정산 양위께서 설한 예문을 다음에 열

38) 전경 교운 2장 42절

39) 도덕경 도경 제25장

거한다.

- ㄱ.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40)
- ㄴ. 曰有道 道有德(말하건대 도가 있고 도에 덕이 있다.)41)
- ㄷ. 원·형·이·정은 하늘과 땅의 도며 인·의·예·지는 사람과 신명의 도니라(元亨利貞 天地之道 仁義禮智 人神之道)42)
- ㄹ. 천지의 일이 모두 음양 가운데 있고 만물이 형성되는 이치가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있느니라(天地之事 皆是陰陽中 有成萬物之理 皆是陰陽中)43)

위의 예문의 ㄱ, ㄴ은 증산의 말씀이고 ㄷ, ㄹ은 정산이 지은 주문과 경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증산은 도를 실용적으로 상생의 도라고 하고 도에 덕이 내포 되었어서 도 덕이란 곧 도가 근본이 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정산은 ㄷ, ㄹ에서 천도와 인도를 나눠서 가르쳤고 또 건곤 곧 음양이 천지와 만물의 도라고 한 것이 주역에서의 이론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음양 곧 태극(또는 무극)이 그 자체지만 이 도의(道義)를 하나의 가시적(可視的)인 도(道) 곧 현대인이 종교라고 하는 형태의 도단(道團)을 구성한 것이 종교위인의 역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일반이 철학적으로 연구, 구명하는 무극, 태극 곧 음양의 도리를 하나의 종교로서 성립시킨 그 당시의 이론을 찾아본다.

夫道也者 天所命而人以行者也 天有无極大道 以无極之道 化生人矣...蓋道即理也 理即无極也 无極即天也(대저 도라는 것은 하늘이 명한 바이며 사람이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에 무극대도가 있어 무극의 도로써 인간을 화생(化生)한다. 말하자면 도는 곧 이(理)며 이는 곧 무극이며 무극이 곧 하늘이다)44)

지면관계로 위의 상세한 해설대신 대순사상의 도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만 말하고 이 절(節)을 닫기로 한다.

40) 전경 공사 1장 3절
 41) 전경 교운 1장 16절
 42) 전경 교운 2장 41절
 43) 전경 교운 2장 41절 음양경
 44) 무극대도 창도취지서(도주 정산)

- 원형이정은 천지의 도며 인의예지는 인신(人神)의 도다(이로써 천지인 3계의 도가 설정된다.
- 건양과 곤음의 음양으로서 천지와 만물이 이에서 조성된다.
- 하늘에 무극대도가 있어 인간이 화생한다. 도리가 무극이며 무극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무극의 대도인 대순사상의 연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대순사상의 도통관

도통 곧 도가 통했다(도를 통했다는 말과 구별된다) 말을 우리 주변에서 곧잘 듣는다. 저사람 포커에는 아주 도가 통한 사람이라느니 여자 피우는데 도가 텃다느니 하는 비속한 말도 듣는다.

도가 터진 사람을 도사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말이지만 저 교수는 민사소송법에는 아주 도사야, 저 아주머니 국맛 내는데는 아주 도사가 되었어 하는 말들은 모두가 광의적, 다시 말하면 가시적, 현실적인 일에 숙달되어 남이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을 이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총 제5집 논고 중에는 이런 광의적, 보편적, 현실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대순사상이 지향하고 또 창도 근1세기에 수행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신비론에 속하고, 대순 교의적으로는 상제의 대강하신 지기(至氣)를 받은 상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신앙가가 아닌 연구가의 태도로는 천착이 지난(至難)한 명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군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의 우화등선(羽化登仙)⁴⁵⁾하는 선인이 되는 경지와는 더욱 다른 것이며 불교의 대각, 자각의 자기완성적 견지와는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의 근본적 차이를 지닌다. 하기가 순수한 자력일변도나 또 타력일변도만으로는 안되는 것이지만 교의상 구별이 된다.

그밖에 자력적 수련이나 타력적 공부와는 관계없이 신계의 신명이 접해서 예언도 하고 투시(透視)등 기적을 나타내는 경우의 무격(巫覡)같은 일도 있

45) 우화등선 : 선도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는 것을 말함

다.

그리고 공부초기에(또는 영구히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예도 있지만) 허령(虛靈)도수에 빠져서 갈피를 못잡고 자기의 주체조차 망실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여기서 세계의 많은 종교가 신비적 수련을 하는 주문이나 의궤(儀軌)는 각자 상이하지만 수련을 절차를 통해서 반응되는 과정을 추출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하기는 더 세목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지만 이 3가지는 불가결의 과정이니 이런 경로를 차례로 경험하지 못한 도통자가 있다고 하면 바른 수련이 아니고 바른 도통이 아니었다고 단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1. 청정 2. 광명 3. 합일의 세단계인 바 간단한 해설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앓는 방식이라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하는 일에 너무 마음 쓸 것은 없다. 다만 사람이 여러 가지 여건(근기라든지 수련의 도라든지)에 따라서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늦게도 나타난다.

1. 청정

먼저 첫단계의 공통성을 심신의 청정 곧 청정심을 얻는 것이다. 한국불교 천태종의 중창조 상월대사의 법어에

일심이 늘 청정하면 곳곳마다 연꽃이 피리라(一心常淸淨 處之蓮花開)⁴⁶⁾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수련중에 얻는 청정한 마음을 평상시에도 지니고 있으라는 말일 것이다. 기독교 성서의 기독교의 산상보훈에 맨먼저가 ‘마음이 가난한 (곧 비었다는 뜻)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⁴⁷⁾고 하여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첫째가 청정하고 가난한 마음이란 것이 주목되는 것이다.

2. 광명

청정하게 된 마음을 집중시킨 다음 명상을 하면 관조(觀照)의 세계가 전개되어 광명이 도래(到來)한다. 황금색 세계나 유리광 세계가 전개되며 마음에 생명의 환희와 함께 에너지가 용출하는 경지에 이른다.

46) 천태종성전 상월대조사 법어의 계승

47)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5장

3. 합일(合一)

브라흐만교(婆羅門教 - 오늘의 힌두교로 이어진다)에서는 최고 이상경을 범아일체(梵我一體) 곧 범천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합일의 세계다. 기독교에서는 절대자 신과 내가 하나된다는 것이 유사하다.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름은 무엇으로 불이든지 대개가 동궤(同軌)에 속한다. 불교에서 쓰는 말 즉일(卽一 = That is it)의 세계도 다 유사한 경지인 것이다.

이런 단계의 경로를 거치고 나면 드디어 정신세계의 개안(開眼)이 되어 새로운 세계가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니 라마교(喇麻教)에서 말하는 제3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 신계, 또는 영계의 개안으로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많은 책도 볼 수 있게 된다. 지혜를 본분으로 하는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지도 허령(虛靈) 도수와 함께 간주하여 금하고 있지만 어느 종교든 이러한 개안의 경지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현상이 일어나서 안 배운 외국어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질병의 치유 등 부사의(不思議)한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을 도력(道力), 영력(靈力), 법력(法力)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신력(威神力)이라고도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가 양위상제를 친견(親見)하고 직접 교훈을 받는 신력(神力) 신통력이 따를 수 있는데 건전한 의미에서 먼저 정상한 인간의 도, 그리고 도인으로서 확실한 신심으로 인간생활의 주체확립으로 정당한 생활을 하는 평상심의 도인, 도사가 되는 것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경에 나타난 도인의 도통은 일반적인 자기 노력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제인 증산과 정산이 내려주는 것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래(天來)의 지기(至氣 곧 極氣)를 받아 지니는 것이 본령이 되어 있다.

다음 예문을 참고로 한다.

이제 만일 한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편벽됨을 할난 하리라.48)

나는 닭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⁴⁹⁾

도통일 건감간진손리곤태에 있다는 것을 상제께로부터 받았느니라⁵⁰⁾

위의 예문의 성구들로서 대순의도통은 자각현상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주는(大降)것을 받는 봉강(奉降)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자력적(自力的) 수행과 공부에 따라 빠르게도 늦게도 되니 상재(上才)는 7일, 중재는 14일 하재는 26이면 성도한다⁵¹⁾고 가르쳐 있다.

도가 통한 사람은 진인(真人)이며 도사(道士)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러한 도통의 경지는 어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교(敎)라고 할 학문적인 바탕위에 정신적 수도의 공부도 있어야 하고 또 종교생활과 현실적 일상생활의 종합된 것으로 완성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의 도통이 대강(大降)의 하늘이 주는 곧 상제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면 위에서 한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수도의 방법이 남은 문제다. 이것은 요람⁵²⁾에서 가르치듯이 ‘심신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으로 공부, 수련하는 것이다.

수도는 공부·수련·기도(평일기도와 수일기도가 있음)로 하며 집단적으로 대중수련, 대중도통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독특한 수련방법이다.

일반적인 수련은 특정시간이나 장소에 구애없이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부는 특정의 장소(회관마다에 외수(外修=남자수도자)와 내수(內修=여자수도자)의 공부실이 있다)에서 특정한 시간에 주문 송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공부는 옛날 제갈공명의 포진법(布陣法)과 같이 해서 엄격한 규율로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경근 장중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49) 전경 교운 1장 34절

50) 전경 교운 1장 47절

51) 전경 교운 1장 41절

52) 대순진리회 요람 九. 수도부분

3) 도통의 완성, 진경

도주 정산이 무극도 창설시에 정한 것이 오늘에 전래되는 종지 4개강의 결론이 도통진경이며 그 도통에도 바로 진경을 고조한 것을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는 것이 본 논제 연구에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20세기의 개막과 함께 일제의 점령정책 아래 신음하던 국민들은 정신의 현실과 함께 안주처를 잃어버린 양상으로 좌왕우왕하고 있었다.

조선조 5백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 독특한 유교적 전범(典範)으로 유일한 문화왕국이었던 한국이 준야만국인 일본의 문물에 아울러 정신적으로 저차원이던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의식과 생활 구조가 변혁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음 붙일 곳 없는 국민들은 프랑스에서 들어온 천주교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생기는 동시에 민족적으로는 천지의 개벽을 고조하는 수운사상과 민족고유의 고신도에 입각한 단군교, 해원상생을 고조하는 증산계의 보천교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무극도 그밖에, 1인 1교의 많은 신흥종교들이 생겨나게 된다.

또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산중에 숨어서 도를 닦아 도통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으며 그에 따라서 도통했다고 하는 도사, 진인이 무수히 난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해가 파대(頗大)하였으니 기행, 이적, 치병, 양재 등으로 기인취물(欺人取物)을 업으로 하는 사이비도통자들이 발호(拔扈)하는 사태가 생겨난 것이다.

이때에 무극도를 창도한 정산은 진도(眞道)의 진인(眞人)이면 진경(眞境)에 주(住)하는 자가 아니면 안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뜻에서 도통진경이라는 진도(眞道)의 진경(眞境)을 갈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진경이란 이상처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첫째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내면적 정신, 심리상의 진경이다. 양위상제께서 내리는 도가 몸에 내려서 스스로 지니고 있던 신성(神性)의 주체성의 확립으로 신인조화의 원만한 인격이 형성되어 안심입명하는 진인간(眞人間)

의 가치관이 형성하게 된다. 정신과 육체를 초월하고 공간과 시간, 생과 사도 초월한 경지에서 3계에 거리낌이 없으며 예시, 예언을 하고 치병·양재·축사(治病·禳災·逐邪)등이 자재한 인물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를 진인·도사로서 진경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경지에 들어 있는 사람을 인간의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니 그런 진인은 인계에 거주하면서도 신계에 속한 신인(神人)이며 인신(人神)이니 상제에게서 음양5행의 극기(極氣) 곧 지기(至氣)를 받아 지닌 하나의 소우주적 인간이며 그 자체가 바로 우주를 형성하는 큰 일부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신인은 그 정신만 초인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도 그러할 것이니 그의손과 발의 움직임이 곧 음양5행의 운행이요, 그의 웃음은 시원한 바람결과 따사로운 햇볕이고 그의 노함과 외침은 뇌성벽력과도 같을 것이다. 비록 이런 인간이 일반과 함께 음식하고 담소하여도 그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가치관은 판이할 것이지만 용렬한 사람들이 알아챌 수는 없을 것이다. 도로 남보다 특이한채 행동하는 것이 가짜진인이며 가짜진경을 연출하는 것 뿐, 진경이란 그렇게 노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기행 이적을 부인하든지 무시한단 말은 아니다.)

여기서 말한 진인(眞人)이란 진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도교에서 말하는 개념의 진인이란 용어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다음은 가시적인 진경을 들 수 있으니 이런 경우의 도통진경이란 말의 해석이 '도가 통한 참 경지'라는 풀이와 함께 '도통하여 이룩되는 진경세계'란 뜻으로도 풀이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것을 말해둔다.

다시 말하면 천하의 모든 창생이 다 도통되었다고 하면(또 전체의 도통이 아니라도 개벽공사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대순진리회의 목적⁵³⁾에서 규정하듯이 '도통인은 지상신선의 실현이요, 진경은 지상천국의 건설'로 가시적 진경에 이룩될 것이니 이것이 도주 정산이 각도문(覺道文)⁵⁴⁾에서 가르친 '청화 5만년 용화선경(淸華五萬年龍華仙境)'의 완성이다. 이것이 도통에

53) 대순진리회 요람 八. 목적

54) 진경 교운 제2장 33절

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신 다음 예문을 참고한다.

仙·佛·儒大道正通 是以天命代語 先後天道理氣生(선도와 불도, 유도의 대도(道)가 바로 통(通)하여 이로써 하늘의 명을 대신 말씀하니 선천, 후천의 도와 이(理)와 기(氣)가 생긴다)⁵⁵⁾

한 것이니 선불유의 모든 종교 그것도 곧 상제의 대강하는 도와 이와 기를 대신 가르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도가 통해지는 것이 5만년 용화선경의 근원임을 가르친 것에 유의할 일이다.

아무튼 도가 통한 도통의 경지는 개인으로서나 사회전체 국가전체 나아가서는 세계전체에 미칠 미래를 구제할 더 이상 없는 결론적인 이상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Ⅲ. 21세기와 대순사상

본고의 제목을 ‘대순사상의신세기적 고찰’이라고 한 것은 대순사상이 대순을 신앙하는 도인들에게는 물론이지마는 더 나아가서 세계인류 모두가 21세기를 꾸려나가는 지도원리, 생활원리로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아무리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생활이 과학화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무상의 행복을 느끼는 데까지 이른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서 새세기의 고민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21세기와 대순사상, 그 대순사상이 어떻게 구세적 작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니 이러한 5만년 용화선경의 신세계를 이룩하는 것이 양위상제의 큰 뜻이기도 하다 할 것이다.

음양이 합덕하는 새세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컴퓨터와 인간의조화 아닌 신과 인간과의 조화가 있어야 하며 투척하는 포탄대신 묵은 원한을 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는 해원상생의길이 트이어야 하겠다.

그리고 좀더 정치에 도가 트이고 경제의 상생의 윤리가 성립되며 문화가 육체적 관능의 원시적 사고에서 벗어나 신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학문이 되

55) 전경 앞의 절 각도문

고 도통의 참경지에서 우리나라의 예술이 되어야겠다.

그러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점점 파괴되는 자연환경과 함께 거칠어진 심성의 인간사회는 진멸(殄滅) 그대로의 결과밖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류는 공감할 것이다.

1. 음양합덕의 평화구축

이제 종지의 4강령을 차례로 들어 새세기의 앞날에 견주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양극이 무너지고 화해의무드가 풍기듯하던 세태는 아직도 여기저기서 포탄성이 울리기 시자하며 유럽도 유로화(貨)를 중심으로 뭉치는가 했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눈을 안으로 돌려 이 국토 안의 사정은 어떠한가를 살핀다. 세계지도 위에서 보면 눈에 한 마리 만한 국토의 허리가 잘려져서 음양의 부조(不調)라기보다 단절상태에 놓인 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남쪽에 위치한 우리 한국의 국내사정은 어떤가. 국가 의정 단상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다툼이고 지역적으로는 영·호남의 불합덕이다. 관청, 공청마다 학교와 공장, 사원(寺院)과 교회,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한군데도 제자국에 맞아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음양의 합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IMF체제 아래서의 외환내상(外患內傷) 음허화동(陰虛火動)의 중병환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한쪽은 숨겨둔 돈이 남아 도는 판인데 제 발목을 끊어가면서 보험금 타먹으려는 신종 자해(自害) 범죄가 생기는 음양부조의 현상이다.

우주 전체가 음양합덕의 조화(造化)로서 생성하는 원리를 태극기와 함께 우러러보며 합덕으로 사는 21세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2. 신인조화의 인생관 정립

신인조화라고 할 때 신 곧 신명을 2월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먼저 나자의 속에 내재한 신(內在神), 신성(神性)이라고 해도 좋은 스스로의 신다움을 인식해야 한다. 육체와 함께 정신(精神=정수적인 신)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게 있는 신(神=精神)과 체(體=肉體)의 조화(調和)에서 생기는 조화(造化)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 첫째로 기본되는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외계의 신, 곧 신계(神界)에 있는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다. 극단의 무신론자에게는 납득이 불가능하지만 신계(神界)에 조금만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우주에 가득찬 것이 인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신명들이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선신(善神)이 와서 지키고 도와주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악신이 좋아라고 거들어준다. 사실 우리가 계획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지 않은 일도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같은 것이 모두 신계의 작용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을 굳이 인생관에 적용시키지 않고 생활관이라는 새말을 만들어도 좋을 것인데 현실만의 가시적인 것을 과학적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미신답게 보일지 몰라도 외국에서까지 심령과학을 연구 또는 실험하는 이들의 많은 경험의 실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로봇 컴퓨터 같은 것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계, 기구들일 뿐이고 이러한 물질계의 발전과 함께 신명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 21세기가 열리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계문명의 발달만 가지고 인계(人界)생활을 만족해 하는 생각은 현실 일방적인 완전한 인류사의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이니 신인조화의 정신계와 함께 하는 현실계의 발전이 아니고서는 인류의 미래는 개화된 원시생활 뿐일 것이라고 경계하는 바이다.

3. 해원상생으로 인류평화를

해원상생이란 강목(綱目)이 세계 어느 종교의 무슨 덕목보다도 수승(殊勝)하다는 것은 누차 말한 바있다.

윤리도덕면에서의 대순사상은 이 한마디 말로서 마감하였다고 해도 과연

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21세기의 인류를 평화롭게 생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목이 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구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로서는 21세기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듯이 동양에서도 공부자의 인(仁)이나 불교의 자(慈)와 비(悲)가 또한 너무 넓은 덕목이라서 신선미가 없는데 여기에 해원상생이란 대순의 교의야 말로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신세기적인 만인류의 교의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니 인의니 자비보시니 하기에 앞서 인류의 유사(有史) 5천년의 원한 그것이 상대와의 결원(結怨)이 된 것을 말 한마디로도 깨끗이 해원하지 않고서는 동서양 성인들의 보석같은 교훈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UN본부에 각국 원수급을 불러 모아서 한판의 살풀이 해원곳을 거창하게 풀어먹인 다음 세계평화와 국제제휴를 외칠 것이다.

일본사람의 혼네(本音=本心) 다르고 다데마에(建前=겉치레) 다르고 한 것이 본보기가 되지마는 진정한 결원의 해결없이는 무슨 회담이니 국제연합이니 해봐야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 아니다.

대순의 해원상생의 교의를 앞세우고 모두가 '내탓이오'하는소리를 외치게 되는 날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역대의 국가원수가 남북통일이 서기 2천년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던 말도 허사가 되었다. 해원을 하지않고 상생하자고만 해서 안되는 한반도가 해원상생의 거룩한 기치 아래 새역사의 장을 이룩하여 세계에 범(範)을 보여 세계의 모든 국가가 본을 보고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이다.

4. 도통진경의 진세계 건설

요즈음 세상에는 '저사람 돈버는 데는 도가 텃다. 또 저사람은 컴퓨터에 도사다'하는 말은 들어도 천도에 지도에 인도에 도가 통했다는 말은 듣지 못한다.

도통이란 도가 통한 것인데 돈이 통하고 컴퓨터가 통한 것은 도가 아니냐고 반문하면 대답할 말은 없다.

그만큼 도통이란 광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에는 해도 협의적인 해설을 가해서 태극3계 공도의 도통, 하늘서 내려주는 도를 받아 통하는 것이 대순사상의 도통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예를 하나 들면 불교에서는 성불(成佛) 곧 부처가 된다는 것이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는 최고 이상인데 이것을 선종(禪宗) 계통에서는 자각(自覺)으로 견성(見性)하면 된다고 하는데 반해서 정토종(淨土宗)에서는 중생이 감히 제힘으로 성불은 안되는 것,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阿彌陀佛)의 불력(佛力)이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진언종 곧 밀교(密敎)의 경우인데 여기서는 즉신성불(卽身成佛) 곧 이 육신의 몸 이대리가 성불하는 것이며 불교에 입신(入信)한 것부터가 성불이라고 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우주만한 성불을 했으면 법부중생은 종교심을 지니는 그것부터 좁쌀 알맹이 만한 정도라도 성불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교의에 대비(對比)해서 대순사상의 도통도 일반인에게 또 장차 세계인에게 이런 열린 교의의 설정과 포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통한 정치, 도에 맞는 경제, 도통을 위한 학문과 예술을 할 수 있는 세계가 되게 하는 것도 양책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서구사상의 후퇴와 함께 동양의 그것도 한국의 사상, 그 가운데도 대순사상이 지구 세계 전체의 지도 이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 그렇게 되는 날을 믿어야 하겠다.

IV. 결론

대순종지의 4개강목을 이미 본 논총 2~5집에 걸쳐 연구 발표한 후에 다시 이것을 총괄하고 또 중요한 요목만을 가려서 전자(前者)에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인간의 모든 사물, 그리고 정신적인 종교사상이나 사회사상도 늘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시대에 적응한 해법(解法)으로 조화(調化)되기 마련인 것을

말해 두고자 한다.

교단의 조직형태나 행정기구, 포덕방법 성직자의 품계, 직책 또는 도복(道服) 찬가(讚歌)와 기도문(곧 주문) 그리고 회의 의식, 공부, 수련의 방식, 가정 의례등이 시대와 함께 항상 유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도의 도지(道旨) 교의(教義)의 내용과 정신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종교에서의 가변적(可變的) 요소와 불가변적 요소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수구(守舊)와 전통 속에 혁신과 진보를 가하여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가짐으로 성교(聖敎) 대도(大道)를 더 발전시켜 세계에 무비한 대순사상이 21세기의 세계에 평화와 광명과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법광(法光)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값어치가 있는 것이 대순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민족적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세계의 종교로, 세기의 종교로 대비약 대비상(大飛翔)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는

- 양위상제와 고(故) 우당(牛堂) 도전의 가호와
- 교단 임·직원 모든 성직자(聖職者)의 일치단합된 종교심
- 학술, 연구관계인사들의 끊임없는 연구, 발굴
- 모든 포덕전문인의 위도(爲道) 분신하는 열성
- 문학·음악·미술·무용·연극·조각 등 모든 예술, 예능인의 개척정신
- 구세제인(救世濟人)을 염원하는 모든 도인들의 정성
- 현대적인 용어와 현대의 마스크를 통한 새로운 포덕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함께 총화되어 21세기의 세계사를 밝히는 큰 횃불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논고를 필한다.

【참고문헌】

▶ 경전류

『전경』 대순진리회 출판부
『천지공사기』 李祥昊 著,
『대순전경』 李祥昊 著
『진경』 태극도 출판부
『4서 3경』, 『노자 도덕경』
『성서(신약·구약)』 대한성서공회
『생명의 실상』 생장지가
몰몬경·천태·진언·원효종성전

▶ 학술서

주역강의, 경북대학교 출판부
밀교문답, 일본 진언종 풍산과
주자대전, 회동서관,
한문화개론, 일본 誠文館
동양철학사강, 일본 대동관
지나철학사강, 石川誠 大同館
세계사상전집, 일본 입문출판사
중국선종사, 일본 柳田聖山 著
원효사상(一), 이기영 著
원효사상(二), 심재열 著
한국종교, 홍창덕 編
한사상과 민족종교, 一志社
대중철학개론, 사상사
철학, 강재륜 著
환단고기, 배달문화사
증산교개론, 홍범초 著

증산신학개론, 립영창 저

▶ 사서류

종교대사전, 일본 동경대학 출판부

강희자전, 일본 박문관

세계백과대사전, 동아출판사

불교대사전, 보련각

신불교사전, 일본 성신서방

국사대사전, 한국출판사

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한자대전, 교육서관

상해 한화대사전, 일본 부산방